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월호
2012

미국 교도소 선교사 초청 예배

시간: 11월 14일(수) 저녁 7:30분
11월 15일(목) 새벽 5:30분

장소: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주소: 601 Tyler Rd, NE, ABQ)

강사: 수잔 샴프 한국인 선교사

-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Maricopa County jails) 선교사역
- 6년이 넘는 기간동안 5000여명의 여성 주감자들을 섬기심
- Walk with Jesus Ministries 선교회를 설립하심
- 본인이 설립하신 선교회를 통해 매월 수백권의 성경과 신앙서적을 보급
- 교도소내 성경공부 모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신앙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
- 수잔선교사님의 헌신과 영적으로 충만한에서 나오는 효과적인 전교를 흥미진 Sun Valley Community Church와 협력하고 계심

뉴 멕시코주 산타페 대교구 정례 성령 세미나

주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미리내 북상의 집 원장
한국 가톨릭 성령체신 봉사회 교육위원
오정 보나벤투라 신부
오플라오마 한국순교자 성당 주임신부

장소: Madonna Retreat Center
일정: 2012년 12월 26일 4시(수)~29일(토) 4시
(3박4일, 참가비 \$300 선착순 35명)
문의/접수: 알버커키공동체 (505) 652-4627
catholicnm@gmail.com
신청서: <http://cafe.daum.net/abq-catholic>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6일

이경화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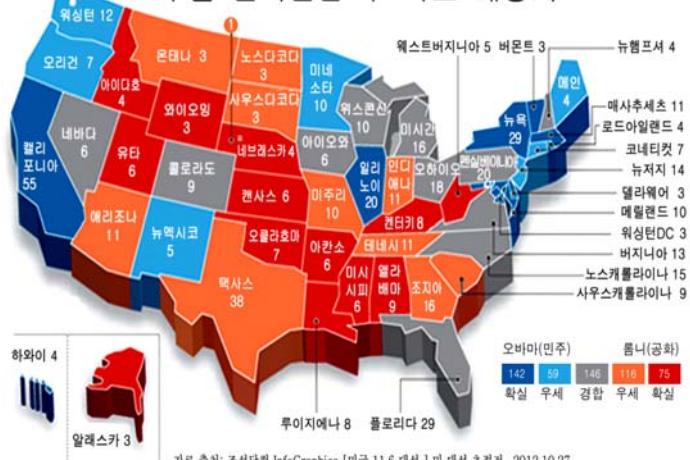
금년은 미국과 한국이 다 같이 앞으로 4년 동안 나라를 이끌고 나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여서 우리들은 예년 보다 더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다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두 나라가 보다 더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되어 나가길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번호 광야의 소리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선거제도에 익숙한 한인들에게 미국의 선거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직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간접선거제도는 어떠하며, 왜 간접선거를 하게 되었는지, 간접선거의 장단점을 무엇인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모든 미국 국민은 자신이 속한 각 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뽑을 투표자가 되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하며, 이를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일은 11월 첫 월요일의 다음 날인 화요일로 정해져 있어서 금년은 11월 6일이 된 셈이다. 이날 선출된 각 주의 선거인단은 한주일 뒤 수요일에, 금년의 경우는 11월 14일에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미국 영토 일자라도 주가 아닌 지역은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다.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가 이 경우에 속한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도 오랫동안 선거권이 없었으나 1961년 헌법수

주별 선거인단 수 확보 예상치



자료 출처: 조선닷컴 InfoGraphics [미국 11.6 대선] | 미 대선 초집전...2012.10.27

정 23조에 의거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권은 없지만 대통령 선거권만은 부여되어 3석의 선거인단 배정을 받게 되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수 435명과 상원 의원 수 100명을 모두 합친 수에 위싱톤 D.C.에 해당 선거인 3명을 합친 538명이 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주당 2명인 상원위원 수에 하원 의원 수를 더한 것으로 정했다. 하원위원의 수는 해당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선거인단 수도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은 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텍사스 주의 선거인단으로 38명이나 된다. 뉴멕시코 주는 5명이 되고 인구가 더 적은 버몬트 주, 알래스카 주, 렐라웨어 주, 몬태나 주, 와이오밍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는 3명씩이다.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 되므로 당선이 되려면 과반 수가 넘는 270명을 확보하면 된다.

• 승자독식(Winner-take-all)

각 주에서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후보자의 득표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수를 배분하는 방식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거인단 전체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방식이다. 50개 주 중에서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뺀 48개 주는 모두 승자독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주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서 주민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뉜다.

승자독식제도는 선거운동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후보자는 각 주의 주민들의 지지도 상황에 따라 선거유세에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 승산이 확실한 주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되고 승산이 불확실한 주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놓는 사태가 일어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50대 50 정도로 어느 후보자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주를 영어로 Swing state 또는 Battleground state라고 부른다. 공화당의 빨간색과 민주당의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된다 해서 경합의 주를 Purple state라고도 부른다. 조선닷컴에서 소개한 2012년10월 기준 선거인단 수 예상치 지도에서 보면 회색으로 표시한 10개의 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Battleground state가 된다. 그 중에서도 오하이오, 플로리다가 대표적인 주로 치열한 싸움터로 알려져 있다.

• 간접선거의 역사적 배경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가 유래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헌법회의에서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의 채택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합중국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상원은 주민의 인구에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의 대표를 보내게 하고 하원은 주민의 인구비례로 정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는 절충안이 채택되고 선거인단의 구성도 상원, 하원 의원 수에 기초한 간접선거 제

도가 채택된 것이다.

• 직접투표 득표와 선거인단 득표의 차이

전체 유권자의 직접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4번 있었다. 금년에도 이런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전하는 기사도 자주 본다. 마지막의 경우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서,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는 조지 W. 부시가 앞서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 간접선거의 장점

인구가 적은 주에 사는 주민은 인구가 많은 큰 주에 사는 사람보다 한 표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인단 수의 배정에 들어가는 상원 의원 수는 큰 주나 작은 주나 모두 2명으로 되어 작은 주에 유리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선거는 인구가 작은 주에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선거인단 선출은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주의 주정부에서 하는 것이어서 혹시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 나라 전체가 재선거를 해야 하는 일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직접선거에서는 인구가 많은 도시만을 대상으로 유세를 벌이고 농촌이나 인구가 적은 주를 무시하더라도 도시민의 표만으로 쉽게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간접선거 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작은 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된다.

• 간접선거의 결점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투표 득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2000년도 때의 선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역사적인 유물로 이제는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는 직접선거로 바꾸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제도가 가진 결함 중에서 투표의지의 상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한 정당이 우세한 주에 사는 주민은 우세한 정당 출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세한 정당 출신의 후보를 위해 투표하려는 사람에게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한다. 직접선거제도라면 그가 사는 주에서는 열세일지라도 타주에서는 환영받는 후보를 위해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역시 선거유세할 때 문제가 된다. 국민들로 부터 표를 많이 받아도 당선에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간접선거에서는 선거인단 획득이 불확실해 보이는 주에만 시간과 돈을 쏟아붓게 만든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오하이오 주에 가장 많은 자금과 시간을 양 후보가 쏟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네바다 역시 Swing state 중에 하나여서 지난 6월 한 달 사이만

도 7만3천 헛수가 넘는 TV광고가 나갔으나 공화 또는 민주 어느 쪽의 승산이 확실시 되는 주에서는 TV 광고를 통한 선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생기는 불균형한 선거전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간접선거에서는 확률적으로 낮진 하지만 동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동수로 비기면 대통령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투표할 때에는 각 주에서 한 표씩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하게 된다. 즉 인구 백만명을 가진 몬타나 주도 한표, 인구 3천7백만의 캘리포니아 주도 한 표를 던지는 투표가 된다. 각 주에게 동등한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미국 전 국민을 놓고 볼 때에는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선거인단 제도는 워싱턴포스터 칼럼니스트 리처드 코헨의 말 그대로 낡은 제도이며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않아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은 마치 살얼음 판 위로 스케이팅 하는 것과도 같아서 언제 물속에 빠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야의 소리가 독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선거가 끝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택되어 있길 고대한다. 살얼음 판이 깨져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국이 아니길 고대한다.

참고문헌: Albuquerque Journal, "Electoral College an Idea Whose Time Is Gone" by Richard Cohen, 2012.10.28

Thao), LA 총영사관, 김영신, 조규자, 임경애, 민명희, 최신옥, 정풍자, 박순삼, 윤태자, 다련, 현용규,



행사에서 탈춤을 선보이고 있는 이희정씨와, 북의 임은아씨, SBS 좋은 아침 담당 김현태 PD의 취재하는 모습

합기도를 선보이고 있는 홍보대사 이옥주씨의 아들 대니와 탐 형제.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 김치축제 :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김치축제가 10월 27일 여러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10여가지의 다양한 김치와 불고기, 전통음료, 경단등을 판매하여 5천불 정도의 수익금을 내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올해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또한 매회 꾸준히 같은 시즌에 행사를 연 관계로 뉴멕시코주에 널리 홍보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좋은 아이디어로 한국과 문화, 특히 음식문화를 더욱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 각 교회(감리교회, 침례교회, 주님의 교회, 성결교회), 천주교, 각 마켓(아리랑, A-1, 킴스, 아시아, 탈린마켓), 레스토랑(Sizzler, Yummi House, Huong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는 11월 14일
수요일 12시 추수감사절 오찬에 지난 한해
동안 한인회에 후원 봉사하신 분들을 한인회
관으로 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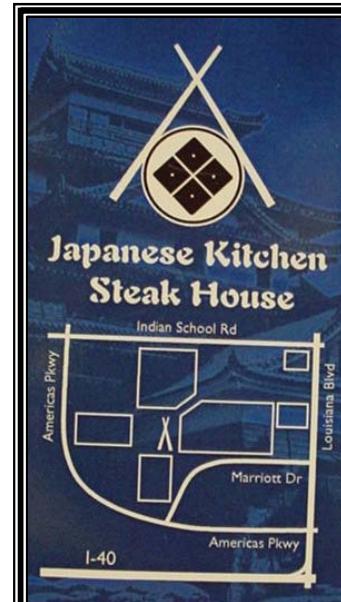
**대장암 건강강의: 11월 7일
(수) 10:30am ~ 12 UNM 안젤라 조교수
강의(50세~75세)**

교민사회 이모저모:

1.SBS 방송국
'좋은 아침' 김현태 PD가 캐나페
프라자에서 뉴멕시코주 한인회
홍보대사 이옥주 씨를 취재 중.
(한국시간 11월 7일 예 방영)



2. 지난 9월 29일 Talin Market International Festival에서 부채춤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이희정씨.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풍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2012년 제1회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장학생 모집

**2012 First Annual KACCNM
Scholarship Program**

장학생 자격 Scholarship Qualifications:

- 뉴멕시코 거주 한인계 학생 (중/고/대)
Middle and high school,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ith a Korean heritage, living in NM
- 성적 3.0 이상 A cumulative GPA of 3.0 or higher

총장학금 Total Scholarships: \$3000

- 대학생/대학원생 Undergraduates/Graduates: \$500 x 2명
- 고등학생 High School Students: \$500 x 3명
- 중학생 Middle School Students: \$250 x 2명

마감: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DUE: FRIDAY, NOVEMBER 30, 2012

서류제출 Submission Packet:

- 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함) Application form
- 성적 증명서 Official Transcript

Submit to: KACCNM Scholarship Committee
1418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연락처 POC:

- 이메일 email: KACCNM@HOTMAIL.COM
- 김철 회장, Charles Kim, President, 505-999-8222
- 문상귀 사무총장, Sam Mun, Secretary General, 505-991-8888
- 전옥미 장학위원장, Okmi Jun Blemel, Scholarship Committee Chair, 505-991-2160



에세이-

(속) 원숭이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가장 빠른 원숭이는 파타스원숭이로, 한 시간에 55킬로미터를 달린다. 원숭이가 나무를 아주 잘 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아무리 익숙하여 잘하는 일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이르는 뜻으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을까. 일본에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원숭이는 꼬리가 길다. 대표적인 것들은 긴꼬리원숭잇파에 속하는 긴코원숭이 · 알락꼬리여우원숭이 · 꼬리감기원숭이 등인데, 그 중 거미원숭이라고도 불리는 꼬리감기원숭이는 가느다란 몸매에 가지고 긴 다리 그리고 몸통 30센티미터에 43센티미터나 되는 기다란 꼬리로 나무를 감고 뛰어난 묘기를 보여 '원숭이중의 스타곡예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보르네오에 서식하는 긴코원숭이는 물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악어를 피하기 위해 나는 듯 강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손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수영선수들이다. 그런가 하면 잔지바르 섬에서 사는 붉은색 칼러버스원숭이는 저들이 자주 먹는 망고 잎이나 인디언 아몬드의 독소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속을 먹는다. 몸에 해로운 독소를 흡수하여 장의 소화 · 흡수 · 운동 등을 조절해주는 정장제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숫가루는 캡슐에 싸여 슈퍼에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 북해도에서 사는 일본원숭이는 다른 어떤 원숭이보다 가장 북쪽에서 살며 긴 털을 가지고 추운 겨울이면 온천에서 목욕을 즐긴다.

원숭이는 인류와 많이 닮은데다가 지능이 높고 재주도 많아 못사람의 눈길을 끈다. 원숭이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원숭이 연구에 일생을 바치는 학자들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그들의 행태가 조금씩 새롭게 보고되고는 한다. 진화생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게는 우정이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그러나 원숭이 · 코끼리 · 말 · 들고래 등의 동물도 우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년에 걸친 연구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영장류학자 존 미타니는 참으로 드문 새로운 침팬지들의 행태를 관찰하여 보고했다. 혈연이 전무한 두 마리 수컷 침팬지가 친구가 되어 사냥감을 할당하고, 먹이를 나눠먹으며,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 우정은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친구를 잃은 녀석은 사교성이 있는 우두머리 급의 침팬지였음에도 몇 주 동안 아무하고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원숭이는 사람의 흥내를 잘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느 날 월트가 친구 세 명과 한적한 코스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 코스의 일부에 원숭이가 살고 있었

알버커키 한인 전주교 공동체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 http://cafe.daum.net/abq-catholic

뉴멕시코 성길교회

전종철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화밍턴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331-9584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다. 일행이 페어웨이로 공을 몰아가자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월트의 가방을 살살이 뒤져 나무덮개를 집어 들고는 다시 나무위로 도망쳐버리는 것이었다. 덮개를 곧 떨어뜨리겠지 싶어 녀석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월트가 애를 써봤지만 헛일이었다. 이내 월트의 머릿속에 ‘원숭이는 무엇이든 보는 대로 한다.’는 옛 속담이 떠올랐다. 그래서 친구의 나무덮개 하나를 집어 들어 땅바닥에 힘차게 던졌다. 그려자 원숭이도 곧바로 들고 있던 나무덮개를 월트를 향해 던져버렸다.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습성을 이용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두세 명이 어울려 술독에 정종을 가득 담아가지고 밧줄과 함께 들고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간다. 사람을 피해 나무위로 도망쳐 올라가 있는 녀석들은 모른체하고 서로 권거니 잣거니 술 마시는 시늉을 한다. 그런 다음 밧줄로 서로를 칭칭 동여매는 놀이를 하다가 술과 밧줄을 그 자리에 두고 멀리 물러난다. 사람의 하는 양을 지켜보던 녀석들이 곧장 나무에서 내려와 술을 마시고 취한 다음 서로를 동여매는 놀이를 한다. 이때 달려가서 밧줄에 칭칭 동여져 음짝달싹 못하는 녀석 하나를 끌고 오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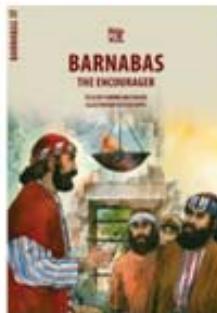
원숭이들의 이런 행태는 남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남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문, 라디오, 티브이에 나오는 것들을 분별없이 모두 옳은 것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읽은 것이나 소위 박사들, 과학자들, 정치가들, 라디오나 티브이에 나오는 유명인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그대로 믿어버리는 바람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는 의문을 가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에서 처음 핵무기를 만든다고 시끄럽던 때, 그걸 만들어두면 통일이 되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떠뜨리던 무리가 있었던듯하다. 내 주변의 70이 다된 사람들이, 그것도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보고 나는 아연실색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받았거나 받아들인 잘못된 관념들은 사고를 명료하게 함으로써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의 명료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거나 가르침과 토론에 의해서 터득해야 한다. 지식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남이 하는 말을 여과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띠를 띠고 섬기는 사람들 Part 2

김준호 장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누가 12: 37 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김기선

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The top staff has lyrics: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The bottom staff has lyrics: "설령과 밀을 이충만한 자라". The music is in G major and common time.

2012년 9월 9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생일이었다. 여선교회에서 마련한 잔치상은 흐뭇하고 흥겨운 것이었다. 이런 때는 장구 치고 춤을 추어도 좋겠지만 춤 대신에 신바람 나는 찬양 2곡을 성가대원들이 불러주어 흥을 돋구어 주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 목사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30주년 설교를 해주었다. 푸짐한 점심도 우리들에게 더 없이 즐거웠고 식사 시간은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알버커키에 계시는 교포들도 여럿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기쁨은 만점이었다. 한국말에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30년이란 세월이 훌렸으니 그간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바이다.

ALLSTAR REALTY^{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또한 중남부지역 감리사님으로 일하시는 김정근 감리사님이 손수 감사패를 만들어 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신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것도 고마웠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다고 본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하실 줄 안다. 그들도 우리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열심있는 교회로 꾸준하게 자라온 것을 알면 기뻐 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향후 30년을 내다보면서 그때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기억했다가 실천하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30년이면 내 나이 105세이므로 긴 세월이긴 하다.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다면 우리교회의 성전은, 나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우선 교회 건물 성전 구조가 일맞게 짜여졌다는 것이다. 치수로 따지면 천정이 20피트 넓이가 32피트 길이가 48피트이다. 다시 말해서 20'x32'x48'이다. 비례로 환산하면 1대 1.6대 2.4(1x1.6x2.4)이다. 이런 비례는 Concert Hall(음악 회관)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치수라고 한다. 우리 성전이 이런 치수가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 된 것은 아니다. 건축된 후에 치수를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우리 교회 성전이 음향학적으로 더 풍부한 음향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라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강대상 윗부분에 있는 sealing panel을 특수 재료(소리의 반사율이 제일 좋은 것)로 설치하였다. 건축할 때는 건축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겨우 6~8피트 밖에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와 함께 로마 합창단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었다. 수많은 관객들로 우리 성전은 차고 넘쳤다. 그런데 몇몇 합창단원들이 공연하면서 나에게 전네준 말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자기네들이 미국 여러 곳에서 공연을 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음향효과가 좋은 데서 발표했던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때 성악가들도 자기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 느끼며 노래를 부르는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들의 좋은 평이나를 더 음향에 신경 쓰게 만들었다.

우리 성전의 잔향계수는 현재 .95 초이다. 내 욕심은 우리교회 싸이즈에서 1.5초가 되면 음악 소리가 더 감미롭고 선율이 선명해지고 풍부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잔향계수에 대한 것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기 전에 성전을 증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얼마나 크게 늘려야 하는가? 내 의견은 길이를 현재의 48 피트에서 24피트를 설교단 쪽으로 넓히고 설교단을 1피트 더 높게 하고 늘린 천정 부분은 전부 반사율이 제일 큰 것을 사용해야 하며 양쪽 벽면에 sound treatment를 조금 사용하면 음향에 악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더우기 잔향계수가 .95초에서 1.5초쯤 되어 이상적인 음악 회관(?)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런데 우리 성전의 크기는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 했던 성전크기(45'x30'x60')와 거의 동일한 것이 된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솔로몬 성전 천정 높이가 우리 교회보다 약 2배가 된다. 그러면 전에 말했던 Standing Wave가 만들어져 용웅하는 소리가 나오고 명료도가 떨어진다.

띠를 띠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택한 인물은 “바나바”이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바나바 학교를 설치하고 벌써 제 1기생들이 졸업하였다. 현재 2기생으로 대학생부원들로 시작해서 3기생은 속회별로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며 또 어떤 역할을 했길 래 바나바 학교까지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하든지 조금 살펴 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4-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했는데 권위자란 말은 “권면하는 자, 또는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 또 11-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好人)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라고 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good man)이어서 새로 나온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남을 섬기고 격려하는 마음이 많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품을 가졌다로 본다. 그뿐이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현금 했다고 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위해서였다. 나는 이글을 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바나바를 닮았을까? 나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스테반을 들로 쳐 죽인 일로 인해서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날로 심해져 여러 제자들이 사방으로 많이 흘러져 나갔다. 바울(회심하기 전 이름은 사울이다.)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신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건강도 회복되고 멀었던 눈도 다시 뜨게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바울이 정말 바뀌었는지 아니면 잔꾀를 써서 전도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

그곳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기회를 찾는 것을 알고 바울과 가까이 함께 일하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내려서 피신시켜 큰 변을 모면하였다. 이 탈출 작전은 성경의 10대 탈출 작전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바울은 배나민지파 사람이고 다소에 있던 명문대학 출신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옛날 신앙적인 고집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무도 상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후에 그가 전도했던 일 등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안심시켰던 것이다. 바나바는 사람을 판별하는 안목이 있었다. 우리 말에 관상(?)을 본다는 말이 있다마는 하여간 바나바는 바울의 변화된 인품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나바의 간곡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목숨까지 노렸다. 그런 기미가 있는 것을 알아챈 바울의 측근자들이 그를 다소로 또 피난시켰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안디옥까지 흘어진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사람들에게 선교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하여서 그들의 신앙 교육을 듣든하게 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까지는 약 300miles 정도고, 거기서 다소까지는 100miles쯤 되므로 꽤 먼 거리이다. 한국 속담에 백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바나바는 백 번이라도 찍어 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고 강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시켜 안디옥으로 데려 와서 합동 작전을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는 빠른 속도로 번성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를 재정적으로 지원 할 만큼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바나바가 땀 흘려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mentor)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다.

바나바는 보통 우리들과 다른 인품을 가졌던 반석 같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는 일차 전도(AD 44년 봄부터 46년 가을 까지) 여행을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의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왔다. 이때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 굴복시키고 구브로 충독을 믿게 만들었다. 그 후 그들 일행은 바보를 떠나 배를 타고 밤펠리아 지방에 있는 벼가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마가는 혼자 바나바와 바울에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주 철없는 짓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매우 당황 했을 것이다. 더구나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안타깝게도 그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하여간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생겼고 2차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맞지 않아 갈라지게 된다. 바울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야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었다. 바울은 마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용납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다. 예수님은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 했는가? 일흔 번씩 일곱 번, 다시 말해서 490번이다!!!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다. 바

나바는 마가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용서하고 Second Chance(다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나바의 위대한 인품이라고 본다. 아주 크게 실수했던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강권하는 마음, 아니면 떠를 떠고 섬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마가의 고민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한영혼을 소중이 여기는 바나바를 이해할 수가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바나바가 초대 교회 시대에 없었더라면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자랐을까”하고 말이다. 바울도 없고 마가도 없고 좀 아슬아슬-----.

Rest of story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칭찬하였다.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언급했고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잘 말해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교회 생일 30주년을 보내면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1884년 미국 북 감리교회 Maclay박사가 한국에 와서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얻게 되면서 간접적인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교사들 중에 또 Underwood박사 가족은 아들, 손자, 증손까지 선교의 사명을 한국에서 감당했던 가족이었다. 그들의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지금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외국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다. Hallelujah !!!

그런데 또 하나 특기할 것은 100년이 지난 1984년에 한국에서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세 분의 목사님들을 선출해서 보냈는데 그들 중에 한분인 정용치 목사님이 우리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것이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여러 면으로 많이 부족했고 미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목사님의 떠를 떠고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모습과 미숙했던 우리들을 땀을 흘리며 지도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회상해 볼 때 나는 정목사님을 우리교회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되는 바나바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나바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정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금년에 다시 방문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을 편면해 주신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다. 정목사님이 알버커키가 제이의 고향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도 미처 그런 느낌조차 가져보지 못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생활한 햇수가 한국에서 지낸 햇수보다 더 많으므로 이곳 알버커키가 제 이의 고향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맑은 하늘, 평온한 동네, 철 따라 피는 꽃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 주는 듯 하다. 지금은 국화 꽃들이 한창이고 뒷마당에 있는 살구나무에 단풍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니 가을이 완연하다.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

나 살구나무와 벚나무들이 벌써부터 내년 봄에 필 꽃 봉우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막힌 능력에 감탄 할 뿐이다.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Sunday close

동경홈레스 9월 선교소식

9월이지만 무더위는 9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의 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의 온도는 차갑기까지 합니다. 공원, 길거리 또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노숙하는 이들에게는 밤보다도 낮에 잠을자는 것이 편할 때입니다.



새로 시작된 두 개의 소그룹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Mrs. 유코가 인도하는 요요기 공원의 그룹이며 또 하나는 문정의 선교사

님이 인도하는 우에노 공원의 그룹입니다. 두분다 저로부터 개인전도훈련을 받고 이제는 각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새로운 지역인 수미다 공원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TOWER인 SKYTREE가 세워져 금년 5월에 오픈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만이 공원주변은 옛에도 시대의 장사꾼들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낙후된 지역으

로 홈레스들도 나이가 많거나 병으로 제대로 몸을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개월간 이곳을 중심으로 전도해서 또하나의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1. 새로시작한 두개의 소그룹이 잘 성장되기를
 2. 수미다공원의 전도가 결실을 맺도록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전도훈련으로 수미다공원의 소그룹인도자가 나오도록
-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인배드림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uerque,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골프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골프라고 불리는 처치 곤란한 열병을 보라. 그것은 막대기로 볼을 구멍 속에 때려 넣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놀이에 미친 사람들은 유별난 복장을 하고 두 발의 바른 각도나 막대기를 손가락으로 감는 방법을 위하여 20년이 넘는 노력을 기울인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 어처구니 없는 스포츠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학자들조차 알지 못할 낯선 단어까지 만들어 내어 쓰고 있다.“

“골프란 게임을 위장한 자기학대의 한 방법이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낚시를 하거나 꽂을 가꾸거나 공장을 세우지 결코 골프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GOLF의 G는 푸른 잔디(Green Grass), O는 맑은 공기(Oxygen), L은 햇빛(Light), F는 발로 걷는 것(foot Walk)을 뜻하므로 결국 골프는 잘 다듬어진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찬란한 태양 아래 풀내음을 머금은 깨끗한 공기를 흡뻑 들이키며 하얀 공을 날리면서 상쾌한 기분에 젖어 걷는 홀륭한 스포츠이다.”

“골프는 사람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격려한 오락이자 동시에 최고의 것인데, 가장 큰 단점은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다는 점이다.”

골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 것처럼 골프를 한 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골프에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수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와 같다.

똑같은 골프장이라 해도 파란 하늘에 산들바람 하늘거리는 날, 찌는 듯한 더위에 바람 한 점 없는 날, 바람 불며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까지 물아치는 날 등 기상 조건을 생각하면 골프의 기술은 더욱더 다양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골프들도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몸이 뚱뚱한 사람, 대쪽같이 훌쭉한 사람, 팔이 긴 사람, 하체가 상체보다 커 균형을 잃은 사람, 손이 큰 사람 등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성격마저 다르니 볼을 치기 위한 스윙이 한 가지일 수 없어 골프의 수를 더욱 헤아릴 수 없게 한다.

골프 경력이 많은 적든 간에 골프장 가기 전날 밤에 가슴 설레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그토록 벼르고 골프장에 나가지만 골프는 골퍼를 조롱이라도 하듯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클럽을 내던지며 다시는 골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며칠 후 슬며시 나가 보면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지난날과는 달리 실수가 없다. 어프로치한 볼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가 하면 그린에서의 기막힌 퍼팅에 동료들은 부러워한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쭐해져서 비법을 전수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갑자기 드라이브 샷이 슬라이스 나고, 페어웨이 샷은 텁抨, 병커 샷은 모래치기를 반복하며, 그린에서는 4퍼팅까지 범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심한 자기비하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길흉화복이 끊이지 않는 골프는 늘 ‘인간 만사 때가 있다’는 글귀를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골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상황은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인생살이와 같다.

골프는 정지되어 있는 볼을 친다. 볼이 어디로 날아가느냐는 오로지 자기 탓이다. 볼이 날아가는 상태는 골퍼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이런 속성 때문에 골프는 사교나 접대에도 크게 활용되고 나아가 비즈니스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정보원이나 안전 시스템으로 보는 일본 사람들은 골프를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독심장치로서 즐긴다고 한다. 가끔 골프를 하다 보면 억세게 운이 나빠 자신만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벼림을 받은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골프에서는 운마저도 공평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골프에서의 최대의 적은 코스도 동반자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고 골프에서의 승리는 자기를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이기는 기쁨이란 점이 또한 인생살이와 같다. 골프의 발원지인 스코틀랜드의 격언에도 “골프 게임에서의 패배의 밑바닥에는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패배가 먼저 있다”라는 말이 있다. 골프의 경지는 초보자 시절 그토록 싫어하거나 두려워했던 혹 또는 슬라이스 볼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즈음에는 벌써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골프는 인생의 축도이다. 그러므로 골프를 치는 것은 인생을 생각하고 즐기면서 반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골프를 보다 더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골프라는 스포츠는 크게 골프 스윙과 골프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골프장에 나가지 않고도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을 즐길 수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골프 스윙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기의 상황(나이, 시간, 경제력, 건강 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그것에 기반을 둔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맞는 골프 스윙과 코스 메니지를 한다면 그래서 조금씩 다시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 골프를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주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단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505-899-342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39-8697)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칠헤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모텔 Hotel/Motel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라스크루스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초빙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
실 담임목회자를 모십니다.

1991년 7월 12일에 창립된 라스 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는 현재 Church of Christ
미국 교회의 별관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주
일예배(동시통역),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자세한 문의사항: 917-817-3883

광야의 소리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골프 레슨

Greg Lee (505) 681-9277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business 졸업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master
program 졸업

-Wally Armstrong golf teaching license

-안동 과학 대학 골프 강의

-대구 유성스포츠 헤드 프로

1회 레슨(60분) \$60

3회 레슨(매회 60분) \$150

장소 - Golf Training Center in Balloon Fiesta park
Arroyo Del Oso golf course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축 개업 ASIA MARKET 아시아 마켓

6207 Montgomery Blvd NE
(NE corner of
Montgomery & San Pedro)
(505) 503-7685

(Old Dinho Market - One of the
oldest Asian Markets in Albuquerque)

Grand Opening

Hours: Mon-Sat 10-7 Sun-11-5

stamp here

65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